

# 현충일 극장가 '공룡의 힘' 막강했다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



##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개봉 하루동안 전국 118만2374명 예매율 집계서 1위 질주... 2위는 국산 범죄액션 '독전' 차지

공룡은 역시 강했다. 하루 만에 한국 극장가를 삼켜버렸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크리스 프랫(39), 브라이스 델러스 하

워드(37)의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쥬라기 월드2)'은 개봉일인 6일 현충일 하루 동안 전국 1931개관에서 1만473회 상영하며 118만2374명을

모아 흥행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 수는 118만2998명이다.

전 세계 최초로 이날 한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한 지 10시30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 100만 관객 돌파 오프닝 기록은 역대 최하다. 종전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은 올해 첫 '1000만 영화인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어벤져스3)'가 4월25일 기록한 98만52명이다.

이는 '어벤져스3'가 개봉일에 확보한 스크린 2460개보다 적은 1931개로 시작한 것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이로써 '쥬라기 월드'는 역대 최고 오프닝, 역대 외화 최고 오프닝, 역대 여름 개봉작 최고 오프닝, 역대 6월 최고 오프닝, 역대 현충일 일일 최고 스코어, 올해 최고 오프닝, 시리즈 최고 오프닝 기록 등을 모두 잡아차웠다.

'쥬라기 월드'는 폐쇄된 '쥬라기 월드'에 남겨진 공룡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존재해선 안 될 진화

고 이상의 위협적 공룡들까지 세상 밖으로 출몰하는 대위기를 그린다. 시리즈 3부작 중 제2부인 이 영화는 스틸과 스펙터클을 모두 담은 지상 최대 블록버스터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시리즈 참사자인 스티븐 스필버그(72) 감독은 제작을, 스페인 출신의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43)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7일 오전 9시30분 현재 영진위 통합전산망 예매율 집계에서 이 영화는 74.0%로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조진웅(42·조원준), 류준열(32)의 국산 범죄 액션 '독전'(감독 이해영)으로 7%에 불과하다.

한편 개봉일인 5월 22일부터 5일까지 할리우드에 맞서 극장가를 지키던 '독전'은 787개관에서 3234회 상영하며 23만451명을 듣는 데 그쳐 '쥬라기 월드'에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누적 관객 수 403만4803명을 기록하며 개봉 16일째에 400만 관객 고지마저 점령했다. /뉴시스



← '독전'

## 야심 가득한 로비스트?... 문정희, 배가본드 합류

배우 문정희(43)가 드라마 '배가본드'에 합류한다.

'배가본드'(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유인식)는 평범하게 살던 남자가 우연한 사고에 휘말리면서 국가 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첩보 드라마다. 이승기(31), 배수지(24) 등이 출연을 확정했다.

문정희는 극 중 야심 가득한 로비스트 '제시카 리'를 맡아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미 넘치는 비주얼, 뛰어난 연기력으로 유능한 로비스트를 완성할 예정이다.

영화 '숨바꼭질' '연가시', TV 드라마 '미마' '달콤살벌 패밀리' 등을 통해 흡인력 있는 연기를 선보여온 문정희는 올 하

반기 개봉할 영화 '암수살인'과 이 드라마를 통해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활약을 이어나갈 태세다.

'배가본드'는 '자이언트'의 장영철, 정경순 작가와 유인식 PD가 각각 극본과 연출을 맡아 다시 뭉치고 '별에서 온 그대' '남만닥터 김사부' 등의 이길복 촬영감독이 가세해 높은 완성도를 기대하게 한다.

2일 대본 리딩을 시작했다. 국내 드라마 최초 포르투갈, 모로코 등 해외 로케이션 포함 촬영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소니 픽처스가 해외 배급을 맡아 한국과 미국, 일본 동시 방송을 추진한다. /뉴시스



문정희

## 뉴이스트W, 25일 새 미니앨범 발표

엠넷의 보이그룹 선발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2로 주목받은 그룹 '뉴이스트'의 유닛 '뉴이스트W'가 8개월 만인 25일 새 미니앨범을 발표한다.

2012년 데뷔한 뉴이스트W는 '프듀' 출연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다. 이 프로그램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직후 작년 10월 발매한 W. 히어(HERE)를 통해 대세 그룹으로 떠올랐다.

뉴이스트는 5인 그룹이다. 모든 멤버가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다. 그 중 황민현(23)이 올해 연말까지 활동이 예정된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멤버로 선발된 후 나머지 네 멤버가 뉴이스트W로 활약 중이다. /뉴시스



##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첫 방부터 대박 예감

tvN 수목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시작부터 폭발했다.

7일 TNMS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30분부터 방송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제1회는 전국 6.3%, 수도권 7.8% 시청률을 기록했다.

가수 아이유(25·이지은)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5월17일 인기리에 종방한 전작 '나의 아저씨'보다 좋은 출발이어서 대박 조짐이 보인다. 3월21일 방송한 '나의 아저씨' 제1회 시청률은 전국 4.6%, 수도권은 4.5%였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비슷한 시간대 지상파 드라마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시청률 5.9%에 해당한다.

이는 시청률 8.7%를 기록한 KBS 2 TV 드라마 '슈츠' 제13회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MBC TV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 제13회와 제14회는 각각 4.7%, 14회 5.3%에 머물렀다. SBS TV 드라마 '혼남정음' 제9회와 제10회는 각각 3.3%, 3.9%에 그쳤다.

이미 지상파 두 드라마를 꺾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슈츠'마저 누르고 전체 수목 드라마 1위에 오를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재력, 얼굴, 수완까지 모두 갖췄으나 자기에로 뽐낼 뭉친 유명그룹 부회장 '이영준'(박서준)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서 '김미소'(박민영)의 로맨스를 그린다. /뉴시스

## 유빈, '도시에' 저작권 문제로 음원 발매 취소

그룹 '원더걸스' 출신 유빈(30)의 솔로 데뷔 싱글 '도시여자(都市女子)' 수록곡 '도시에' 발매가 취소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JYP팬즈에 "'도시에' 관련 저작권 논란이 인지돼 발매를 연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해당 곡의 발매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도시에'는 3월 티저 영상 공개 직후 일본 가수 다케우치 마리아의 '플라스틱 러브(Plastic Love)'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JYP는 양 곡의 유사성을 꼼꼼히 따졌고, 곡을 발매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유빈은 이번 싱글로 11년 만에 홀로서기에 나섰다. /뉴시스

#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 후원금 사용내역

01	취미계층 맞춤형 지원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원 지식보급	5,733,677,999
...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류수영